

## 오피니언 리더



조우성  
광주기독교선언회 회장  
우리중앙교회 장로

10월 30일 목요일 밤, 10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을 앞두고 초청받은 다과 모임을 다녀오는 길에 서광주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등을 받고 서서히 정차했다. 잠깐 눈길을 옆 차창 너머 가로수에 돌렸다. 마치 가로등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로수 줄기와 잎을 보면서 순간 바람이 없는 것이 이상해 차창을 내리고 손을 밖으로 내밀어 보니, 잔잔한 바람이 느껴졌지만 가로수 줄기와 잎들을 흔들리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몇 대의 차량이 지나치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가로수 줄기와 잎이

아이와 봉사하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유럽교회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 보니 교회는 활기를 잃어버린, 마치 바람이 멈춘 진공상태처럼 보인다.

지난 10월18일 광주 170여 중·고등학교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도 모임을 출범시키기 위한 '더블레스광주 학교기도불씨운동' 성회가 5백여명의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 제도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학교에서 기도모임을 가지겠다"고 하니 뜻있는 사역자들도 동참했다. 현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학교 교육환경에서 기독교아리를 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을 인식 못하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목소리가 커서, 모두가 포기했었던 중·고등학교에서, 기독교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 운동이 불씨가 되어 꺼지지 않는다면 광주의 모든 학교와 가정, 사회 곳곳에 성령의 불이 밝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뻥뻥. 이 운동이 강한 바람을 일으켜 학교와 가정, 사회 곳곳을 오염시킨 우상들을 날려 버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삶에 일으켜 하나님나라 정의와 사랑을 전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움직여만 준다면, 함께 뛰어주지만 한다면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변하는

## 바람

혼들거렸다. 초록 신호로 바뀌면서 엑셀러이터를 밟자 차창 밖으로 내민 손에 묵직한 바람이 부딪쳐왔다. 그리고 가로수의 줄기와 잎도 흔들거렸고 손에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120년 전 선교의 무종지대였던 광주는 예수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다. 전국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교회 부흥과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고 선교단체들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40만 성도를 자랑했던 광주가 지금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는 도시로 변질돼 이제는 교회가 거리 전도를 꺼려 한다. 예전 '전도폭발' 같은 운동이 사라진 교회들, 정체되다 못해 쇠퇴하는 지경까지 이르다 보니 우리 사회에는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 듣기는 들어도 교회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세상의 화려한 우상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어쩌면 10만 성도도 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1천 7백 여 교회가 있는 광주에서 예전처럼 체계 있게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매주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될까? 중·고등학생 신자 비율이 2%, 미전도종족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어느 청소년 사역자의 분석도 있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성경 암송하는 어린

침단 산업시대에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자극의 환경에서 믿음과 희망을 주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움직여보자.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신 감동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열린문'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서로 격려하는 이 운동에 광주의 10만 성도들이 참여하여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30만 성도들이 되돌아오는 은혜의 행진을 보고 싶다.

'더블레스광주 학교기도불씨운동'이 초등학교와 대학교로 퍼져가고, 1천7백여 교회로 확산될 때까지 곳곳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블레스광주' 기금도 조성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 선교와 구제를 위한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10만 성도들의 선한 마음들이 일생에 한 번 일만원을 헌금하여 '블레스광주' 기금 조성 참여하기를 요청드린다.

이미 복선중앙교회와 뱀열교회, 동명교회, 우리중앙교회 등 교회들이, 광주기독교선언회 합회에 참여하는 코람데오 등 선교단체들이 협력하여 마중물로 1천5백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으니 우리 순종하며 학교와 우리 사회에서 수렁을 파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귀와 대적하여 물리치는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칼럼

## 설탕 그리고 <배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이야기 -식습관에서 단맛을 다스리는 식치(食治)의 영성이 필요-

WHO 하루 당류(糖類) 섭취량 기준을 25g (100kcal)으로 권장하고 있다. WHO에서 정한 당류의 섭취기준은 총당류(total sugars)를 뜻한다. 총당류는 식품에 존재하는 단당류(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와 이당류(설탕, 맥아당, 유당)의 총량이다. 그 중에서 설탕 함량은 여러 단당류나 이당류의 총당류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탕은 사람수나 사람무의 줄을 정제한 가루형태의 단맛을 내는 천연의 감미식품이다. 설탕은 서로 다른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이당류(두 6탄당 구조가 연결)의 화합물이다. 설탕은 탄수화물에서 가장 중요한 화합물 중 하나이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성장이나 에너지에 필수적인 3대 영양소 중 하나이기에, 실제적으로 설탕은 영양학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식품, 감미료, 보존제 등의 식품산업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화학제품 용도나 공업용으로도 유용하게 쓰인다.

설탕은 단맛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연 그리고 인간에 허락하신 축복의 산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설탕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노예제도 같은 어두운 인류역사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하기에, 설탕은 사실 죄가 없다. 설탕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거나 탐닉하는 인간이 문제다. 설탕을 에너지 원으로 적절히 사용한다면 축복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정제된 이상의 선을 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식습관에서 설탕과 당류를 다스리는 식치(食治)의 영성이 필요하다.

아이스크림과 건강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 시공사>의 흥미로운 책이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회사로 아버지인 어바인 라빈스와 매부인 버튼 배스킨에 의해 창립되었다. 존 로빈스는 배스킨-라빈스 회사 창

립자 아들로 아버지 회사 아이스크림을 매일 어릴 적 달고 살았다. 10대 후반이 되어서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음을 알게 된다. 당시에 자기 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모르고, 결국 단순한 삶을 추구할 목적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 젊은 시절 가솔하여 수년 동안 작은 섬에서 살면서 유제품과 육류 섭취를 거부했다.

존 로빈스는 자신의 건강과 정신세계의 회복 이야기와 육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음식혁명> 책에 실고 있다. 아버지 회사 아들로 배스킨-라빈스 회사의 유일한 상속자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 등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에 자신의 인생혁명으로 비영리단체 EarthSave를 설립한다. 자서전같은 이 책에, 아버지 사업 반대편에서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인생 스토리, 유가공협회로부터 협박위협을 받은 내용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유제품, 설탕 그리고 식품첨가물로 구성된 현대인의 매력적인 먹거리인데, 자신이 그것의 노예였다가 과감히 떠날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존 로빈스의 건강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설탕의 단맛에 탐닉하면 누구라도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 선교칼럼

91



장찬익 선교사  
이탈레전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이슬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5가지는 무엇일까요?"

단기선교를 갔다오신 분들에게 들은 몇 가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형제들끼리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옆에 있던 무슬림 청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무슬림 청년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We are Christians. You are Muslims. How to know that Islam is the truth?)

그러자 P 무슬림 형제가 다섯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1. 기독교는 하나님은 셋이라고

동안에 단 한 글자도 변질없이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5. 무함마드는 인류가 본 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슬림이 진리라고 대답하는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슬림의 대답을 그대로 인정하시나요? 아니

3:15)

만일 우리가 무슬림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말씀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주장 5가지에서 무엇이 거짓 주장 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까. 특히 이슬람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반증할 때 고고학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들을 잘 준비해서 제시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무슬림이 다시한번 자기

## 이슬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5가지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알라이십니다.

2. 알라는 각 사람에게 정해 준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을 온전케 합니다.

3. 이슬람은 알라가 각 나라마다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각 나라와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인정합니다.

4. 그렇지만 알라는 마지막 계시로 쿠란을 무슬림들에게 내려 주셨고 그 쿠란은 지난 1,400년

면 5가지 무슬림의 대답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반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시에 무슬림이 물어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무슬림이 설득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옷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엡 6:13~18)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벧

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자세도로 고민하고 또 다시 만나서 얘기할 때 성경책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꼭 이슬람선교학교를 수강해서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대로 (딤후3:15) 진리로 무장되어서 21세기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gccc.or.kr>



한현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목  
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  
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를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망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  
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 과정별                  | 모집학과      | 모집정원 | 응시자격                                                                            |
|----------------------|-----------|------|---------------------------------------------------------------------------------|
| 신학부<br>(졸업후 전도사 사역)  | 신학과(주,야)  | 00명  | 남·여 세례받은 자                                                                      |
|                      | 목회학과(주,야) | 00명  | 남·여 세례받은 자<br>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
| 신학연구원<br>(졸업후 목사 안수) | 주·야간반     | 00명  |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br>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br>졸업 등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br>서울 남한동 총신에서 주관함. |
| 학술원                  | 목회학과      | 00명  |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

##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수시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gccc.or.kr>)
- ▶ 주야간반: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 ▶ 주말반: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성특혜
- ▶ 최고의 교수진 / 실용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력,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가총, 한장연, 세기총 가립 교단

## 총회신학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